▌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1호(2008.06.30) : 163 185

포르투갈어 호칭 você의 생성과 사용가치

김 한 철*
Kim, Han-Chul

<Abstract>

A Geração e o Valor de Uso do Tratamento 'Você' em Português

O presente estudo tem como objetivo observar a introdução de novas formas de tratamento do interlocutor em português e as aspectos da mudança sociocultural de Portugal e do Brasil através do processo do desenvolvimento diacrônico das formas de tratamento em sua complexa diferenciação pragmática. A fim de entender isso, tratamos de muitas conseqüências gramaticais, tais como o processo de simplificação fonética de 'Vossa Mercê', a concordância de 'você' com a terceira pessoa do verbo, o uso obrigatório do pronome pessoal sujeito, a mistura de tratamento e a relação com o imperativo. Podemos perceber que o processo de mudança lingüística em português com relação ao valor de uso do tratamento 'você' tem uma especialização pragmática ao desenvolver características específicas para realizar certos atos de fala. Concluindo, apresentamos as considerações finais que contribuíram significativamente para a variação e o ensino do português moderno.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브라질)어과
E-mail: beto1717@hufs.ac.kr

[Key Words: Você/ Terceira Pessoa/ Pronome/ Mistura de Tratamento/ Atos de Fala]
[: / 3 / / /]

Ⅰ. 들어가는 말

모든 언어에서 호칭의 형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역사, 문화 및 사용 상황에 의하여 발전되고 정립되어 왔다. 한국어에서 상대방을 '너, 당신, 선생님' 등의 형태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바와 유사하게 포르투갈어(포어)에서도 상대방을 지칭하는 형태는 현재 'tu(뚜), você(보쎄), o senhor(우 쎄뇨르)' 등으로 각각의 가치를 지니며 포어권 언어문화에 존재하고 있다.

동사의 활용과 연관 지어 tu 와 você 를 비교하면, tu의 경우는 2인칭 동사변화 형태를 취하는 반면 você는 3인칭 동사변화 형태와 결합한다. você 가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임에도 3인칭으로 간주되어 쓰이는 것은 문법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다. 또한 인칭의 결정여부와 관련하여 목적격대명사와 소유대명사의 형태가 2인칭인지 3인칭인지에 따라 te와 lhe, teu와 seu 등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표 1 참조)도 관찰해 볼 문제이다.

한편 호칭의 변화를 통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대에 따른 호칭의 변경과 그에 따른 문법 측면에서의 변화 역시 감지할 수 있으며,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호칭의 형태가 말하는 상황에 따라 달리 쓰임은 물론 방언이나 문체 등과 같은 변이 요소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1) 인칭에 따른 대명사의 형태

	주격대명사	직접목적격 대명사	간접목적격 대명사	소유대명사
1인칭	eu, nós	me, nos	me, nos	meu(s), minha(s), nosso(s),nossa(s)
2인칭	tu	te	te	teu(s),tua(s), vosso(s),vossa(s)
3인칭	você(s), ele(s), ela(s)	o(s), a(s)	lhe(s)	seu(s),sua(s)

즉, 통시적 측면에서 호칭의 형태는 사회문화적 가치 및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언어적 변화과정을 거쳐왔다고 할 수 있다. 언어의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가 교차하며 사회의 복잡다양성을 수용하여 언어의 변화를 결정해온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포어에서 새로운 형태의 호칭을 도입하기까지 겪어온 포르투갈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você의 생성과정과 현재 você와 관련된 다른 문법요소들 간의 관계를 관찰하여 현대 포어에서 você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사용가치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적 요소와 언어적 변화를 다룸으로써 오류로서 구분 지을 수도 있는 현대 포어의 다양한 요소들이 브라질 포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결국 포어의 교육을 위해 적합한 척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회와 호칭의 변화과정

포어에서 호칭 체계의 변화와 그 문법적 반향은 다분히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바꿔 말해, 통시적 측면에서 포어

의 호칭체계를 관찰해 보면 내적, 외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언어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14-15세기 왕의 호칭을 위해 절대적으로 사용된 'Vossa+ N'의 구조를 가진 호칭형태, 예를 들면 Vossa Mercê,Vossa Senhoria,Vossa Majestade, VossaAlteza,VossaExcelência등이 포어에 도입되었다. 이때 이베리아 반도에서 쓰이던 언어는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변화과정을 거쳤다.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스페인어는 VuestraMerced,포어는 VossaMercê를 사용하였다가 결국 진화하여 상대방을 칭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칭대명사로 스페인어에서는 usted, 포어에서는 você를 탄생시켰다. 이것은 복수형으로 ustedes와 vocês가 된다. 이러한 요소는 문법적으로 특이한 반향을 일으켰다. 대화에서 상대방, 즉 2인칭을 의미하는 대명사지만 3인칭동사에 일치시키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인칭대명사와 동사간의 체계를 재정비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포르투갈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호칭의 변화과정을 알아보되 você의 생성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 포르투갈사회의 변화

호칭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중세시대 말 포르투갈 사회의 역사적 측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서부유럽의 경제는 12세기부터 수공예 및 상업활동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특징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도시 중심의 새로운 경제조직이 발생하였고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어 정치, 경제적 힘에서 귀족과 경쟁하게 된다. 새로운 경제, 사회구조는 봉건영주들의 힘을 점차 감소시키며 왕의 힘을 강력하게 해주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미 Afonso 3세 시대(1246-1279)에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서 두 가지 특성이 관찰되었다. 하나는 왕실을 더욱 부유하게 발

전시켰으며 또 다른 하나는 1254년부터 부르주아가 귀족과 성직자 곁에서 왕실에 대표자를 갖기 시작하였다. 부르주아는 부(富)의 증가로 14세기 중반 무렵 경제적 측면에서 귀족과 경쟁하게 되었고 João de Avis를 지원하면서 그 정치적 힘을 확장해 간다. João de Avis는 1383년, João 1세의 시대(1383-1433)를 열게 되고 그의 재임 중엔 재 정복(Reconquista) 시대에 만들어진 귀족들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부르주아는 이제 광대한 토지의 습득뿐만 아니라 1415년에 시작된 식민사업의 결과로 얻은 물질적 혜택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팽창하여 새로운 상류계층이 되었으며 포르투갈은 거대한 제국으로 변모하게 된다.

식민지 팽창은 정부 행정구조의 확장을 의미한다. 공직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 자리는 진정한 관료귀족에게 배분되었다. 15세기 동안 많은 수의 농장주들이 농장을 버리고 정부에 의해 지불된 특별세(moradia)를 받아 Afonso 5세(1438-1481) 때는 1,092명이, João 3세(1521-1557) 하에서는 2,493 명이 리스본에 정착하였다. 왕에 의하여 혜택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고정된 액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삶의 모든 변화는 일련의 새로운 관습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예를 들어 왕실의 조약은 극도로 까다롭게 형식적이 되었고 식민지 무역의 부로 얻어진 호화로운 삶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정점에 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 의상, 음식, 호칭의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 모든 혁신적인 일들은 단지 역사적 측면에서 포르투갈로 유입된 거대한 양의 부로 인한 결과뿐만 아니라 과거의 농촌 귀족사회의 쇠퇴와 도시 부르주아의 성장에 의해 특정 지어진 새로운 구조를 통해 형성된 사회에서 새롭게 사회적 역할을 규정지을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호칭의 변화

사회적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어는 새로운 의사소통을 창출했던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사회와 언어간의 역동적 상호관계는 보편적으로 대화자의 호칭 체계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포르투갈 사회가 사람 상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은 언어구조의 다양한 방면에서, 특히 호칭 영역에서 언어적 변화를 가져왔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즉 경제적 변화가 전통사회의 구조를 재조직하였기에 호칭체계에서도 변화를 이끈 것이다.

왕의 새로운 권위가 형성되어온 과정은 포어의 호칭에 변화를 가져와 가장 오래된 호칭 형태인 Vossa Mercê는 1331년 왕실의 기록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리고 15세기 동안 왕실에 형성된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결과로 왕의 호칭이 특히 Afonso 5세의 재임기간 동안 빠르게 여러 가지로 변화하였다. 1434년에는Vossa Senhoria, 1442년에는 Vossa Majestade, 1450년에는 VossaAlteza, 그리고 1455년에는 VossaExcelência가 왕실의 기록에 각각 처음 등장하였다(표 2참조). 유사한 구조를 가진 형태가 이미 라틴어에서 사용 중이었다: Serenitas(Claritudo, Maiestas, Excellentia, Alternitas) Nostra와 Serenitas(Claritudo,Maiestas,Excellentia,Alternitas)Vestra.

(표2) 왕의 호칭 형태의 생성과정

세기	연도	형태
14세기	1331	Vossa Mercê
15세기	1434	Vossa Senhoria
	1442	Vossa Majestade
	1450	Vossa Alteza
	1455	Vossa Excelência

VossaMercê와 VossaSenhoria는 확실히 중세식 표현이다. 두 형태는 중세 가장 중요한 두 가지와 관련이 있다. 왕의 mercê(은혜, 은총)란 특히 정의의 구현 및 왕실의 보호와 관련이 있고, senhorio(군주의 권위)란 거대한 토지 소유 및 군주에 대한 신하의 복종과 관련한 봉건제도의 힘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두 형태의 기원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있다. VossaMercê는 스페인어, 포어의 기원을 따르고 VossaSenhoria는 이탈리아어 기원으로 추측되는데 그 가정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먼저 중세 이베리아 반도와 이탈리아 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senhoria는 이베리아 반도보다 이탈리아에서 다른 봉건영주들과는 차별된 지위를 갖고 있었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VostraSignoria형태가 가장 강력했으며 여전히 vossia,vuscia,vussignuria와 같은 형태가 방언으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형태가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서 차용되어 쓰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스페인어, 포어는 이탈리아어의 경우와는 달리 VossaMercê란 형태로부터 호칭을 일종의 대명사로 발전시켜왔다.

포어에서 호칭 형태의 급속한 전파는 사회적 지위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특히 VossaMercê와 VossaSenhoria는 동등한 계층의 귀족들 간에 친근하지 않은 형식적 호칭으로서 습관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하위계층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를 때도 사용하도록 하여 그 사용영역을 확장해 갔다. 이러한 확장과정은 귀족들이 기존의 존칭 표현에서 탈피하여 달라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를 도입하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VossaMercê의 확산이 특히 눈에 띄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호칭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귀족에 대한 존칭적 가치도 많이 상쇄되었다. 한편 당시 포르투갈 사회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간주

되는 16세기 초 Gil Vicente의 희곡들에서 보면, 귀족들 간에는 호칭 vós 이외에 Vossa Senhoria를 선호하여 사용하였고 Vossa Mercê는 하층의 부르주아들 간에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사실 이러한 호칭 사용의 확장은 1383년으로부터 등장한 새로운 귀족사회와 함께 이미 15세기 초에 시작되어, 당시 왕실의 문헌을 보면 Vossa Mercê와 Vossa Senhoria를 사용하였음이 나타난다.

한편 이 두 형태는 15세기 중반 Vossa Alteza라는 새로운 호칭 형태가 등장하면서 그 사용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결국 1490년에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을 겪는다(표 3참조).

(표3) 15세기 호칭 사용의 빈도 변화

	1455	1472-3	1477	1481-2	1490
Vossa Mercê	19%	37%	18%	7%	0%
Vossa Senhoria	37%	13%	28%	24%	1%
Vossa Alteza	44%	50%	54%	69%	99%

출처: Faraco(1996:60)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반에는 Vossa Alteza와 Vossa Majestade가 왕을 호칭하는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특히 Vossa Alteza는 16세기 동안 왕실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호칭으로서도 사용되었다. 16-18세기 동안 다시 Vossa Senhoria와 함께 Vossa Excelência가 호칭 형태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사실 Vossa Excelência는 1597년 법령에서는 왕이 '각별(excelência)하게 대하는 왕의 자손들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었으나 1739년 개정된 법령에서는 장관, 대사 등의 고위직과 대주교의 호칭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18세기부터 Vossa Excelência는 귀족간의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되었고 결국 포르투갈에서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호칭 형태로 굳어졌다.

3. você의 생성

한편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역사적 과정 속에서 você란 형태는 Francisco Manuel de Melo에 의하여 1665년 발간된 <Feirade anexins>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Nascente(1950)에 의하면 VossaMercê의 발음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você가 탄생하였다. 현재 브라질의 다양한 비공식적 상황에서 você를 ocê로, 또 cê로 발음하는 현상 역시 이러한 단순화 과정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화의 상황에서 사용될 때 포어의 발음은 사회언어학과 방언학적 측면에서 그 각각의 사회적 문체를 반영하며 발전하고 변화하게 된다.

포르투갈에서 VossaMercê와 연관 지어 호칭의 형식성을 논한다면, você는 친분 없는 사람들 간에 쓰이는 형식적이고 동등한 호칭인데 반하여 tu는 친한 사이에 쓰이는 덜 형식적인 호칭이다. 하지만 브라질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tu는 지역적 변이와 관련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쓰이는 반면 você는 이미 친분 있는 사람들간의 호칭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명사이다. 이처럼 브라질에서 você가 광대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국가의 형성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15세기 후반부터 귀족이 아닌 계층 간에 VossaMercê와 그의 변이형들이 일반화되어 사용되었다. 16세기에 식민화 사업을 위해 브라질에 들어온 대다수의 인구가 바로 이들이다. 그 당시는 vós의 소멸과정과 VossaMercê의 음성적 단순화 과정이 매우 진보되어가는 단계였다. 이러한 상황의 증거는 상파울루 내륙지방의 주민들에 의해 사용된 시골 방언에 의해 나타난다.

Amaral(1976)에 따르면, 오늘날은 고어가 된 16세기의 포어 문법과 발음의 특징이 당시 그들의 언어학적 변이형에 나타났다. 그 변이형에 따르면 vós는 소멸되었고 tu는 드물게 사용되었으며 쓰일 경우엔 3인칭 동

사와 함께 사용되었다. 하지만 Vossa Mercê와 관련 있는 형태들, vosmecê,vossuncê,vassuncê,mecê,vancê,vacê,você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브라질에 대한 유럽의 점령 초기이래로 상대방을 호칭하는 형태가 VossaMercê의 각기 다른 변이형들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17-18세기 포르투갈 역사과정과 함께해온 다른 호칭 형태, 특히 VossaSenhoria와 VossaExcelência는 브라질 사람들의 삶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단, 공식 서한이나 법원 등지에서 쓰는 극히 공식적인 문맥에서만 인위적인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독립 이후 의회에서 여전히 Vossa Excelência를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능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포르투갈에서 호칭이 변화된 분기점은 사회적으로 상류층 및 중상류층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대다수는 브라질로 이주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농장주와 노동자들 간의 사회적 구분이 명확하였기에 유럽사회와 같은 어떤 사회적 재정비 과정이 발생하지 않았던 브라질 사회에서 상대방을 호칭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 você가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VossaMercê가 사용되던 시기의 시대적 상황과 음성적 단순화 과정에 낳은 결과로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Ⅲ. você의 사용과 문법요소의 고려

이제 우리는 호칭 체계의 변화과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você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문법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서로 대화하는 상대방, 즉 2인칭에 대한 호칭 체계가 você의 사용

과 함께 새로이 형성되었다. vós는 소멸되고 você와 vocês가 각각 단수와 복수로 쓰이고 있다. Você는 의미상으로는 2인칭이지만 문법적으로는 3인칭으로 사용되므로 일치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목적격대명사 및 소유격대명사의 쓰임에도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브라질 포어에서 주격인칭대명사가 의무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구문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사 체계도 2인칭 복수가 소멸되고 3인칭 형태에 대한 가치가 증가되어 명령법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1. você의 의미

VossaMercê의 발전은 친분 있는 호칭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사용되던 VossaMercê는 você로 변화하면서 현재 브라질에서는 친분 있는 사이에서도 tu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 물론 지역적 변이를 고려하면 기존의 tu가 가지고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você 보다는 tu를 선호하는 브라질 남부지역도 있지만, 브라질 전체를 고려한다면 tu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친근하지 않은 호칭으로서 형식적으로 상대방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칭호나 직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 você는 이러한 형식적인 표현과 tu 사이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O senhor vai ao banco?
(2) Você vai ao banco?
(3) Tu vai(s) ao banco?

위에서 (1)의 경우는 매우 형식적인 표현으로, “선생님께선 은행에 가십니까?”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o senhor는 3인칭이면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3)의 경우는 매우 친근한 관계에서 쓸 수 있는 형식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너는 은행에 가니?”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tu는 2인칭 대명사이다. 2인칭이기에 문법적으로는 2인칭 동사변화 형태인 vais가 뒤따라야 정확한 문장이지만, 현재 브라질에서는 tu를 você처럼 3인칭 동사변화와 함께 일치시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사를 vai라고 쓴다하여 이것을 틀린 문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변이형으로 수용하는 것이 올바르다. 한편, (2)의 경우는 (1)처럼 매우 형식적이지도 않고 (3)처럼 비형식적인 것도 아닌 중간적 단계의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당신은 은행에 갑니까?” 정도로 본다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여기서 의미상 você는 상대방을 지칭하지만 문법적으로는 3인칭동사로 일치시키는 점에 일단 주목해야 한다.

지역적 변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미 언급했듯, 친분 있는 사이에서도 기존의 tu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você로 대체하여 쓰기에 그런 의미에서 você는 tu와 유사하다. 한편 você가 상대방을 지칭하지만 문법적으로 3인칭동사와 함께 결합하는 점에서는 o senhor와 유사하다. 즉 (2)는 (1)과 (3)의 중간적 기능 외에도 상황에 따라 (1)과 같은 의미, 혹은 (3)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복수의 상대방을 호칭할 때는 기존의 2인칭 vós가 유럽 포어의 매우 형식적인 문어체에만 단지 존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멸되었기에 vocês, os senhores,as senhoras등의 형태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이렇듯 호칭 체계의 변화가 가져온 점은 브라질 포어의 동사변화형태 단순화이다. 물론 여전히 포르투갈에서는 2인칭 tu의 사용이 você의 사용보다 더 일반적이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어이

다. 2인칭 복수 동사변화 형태는 사라졌기에 3인칭 복수형에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2인칭 단수형도 아직 포르투갈과 브라질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긴 하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브라질에서는 tu와 함께라도 2인칭이 아닌 3인칭 동사변화 형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변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사변화 형태가 변화하면서 문법적으로 3인칭 동사변화의 역할은 의미상으로 2, 3인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주격인칭대명사의 사용문제

브라질에서 의미상 2인칭 대명사가 문법적으로 3인칭 동사와 함께 결합하면서 1인칭과 3인칭의 동사형태가 동일한 동사에 대하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trazer동사의 완전과거형은 1인칭과 3인칭 단수형태가 trouxe로 동일하고, estar동사의 불완전과거형도 1인칭과 3인칭의 단수형태가 estava로 똑같다.

(4) Estou com fome.
*(5) Estava com fome.

위의 (4)에서 볼 수 있듯이 1인칭(estou)이 3인칭(está)과 형태가 다른 동사의 경우는 주격대명사를 쓰지 않더라도 "나는 배가 고프다"로 자연스럽게 주어가 '나' 임을 알 수 있지만, (5)의 예문처럼 1인칭과 3인칭의 형태가 estava로 같은 경우엔 단지 "배가 고팠었다"라는 의미만 표현되므로 누가 배가 고팠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eu나 você를 사용하여 "Eu estava com fome(나는 배가 고팠었다)" 혹은 "Você estava com fome(당신은 배가 고팠었다)"로 명확히 써줘야 한다. 즉 인칭대명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위의 예는 1인칭과 3인칭을 비교했으나 3인칭 간에도 특히 브라질 포어에서는 문장의 애매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주격인칭대명사의 유무가 중요하다.

(6) Já chegou no Brasil?
(7) Já chegaste no Brasil?

(6)에서는 주어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방을 주어로 한 문장, 즉 "Você já chegou no Brasil?(당신은 이미 브라질에 도착했습니까?)" 인지 또는 제3자를 주어로 한 문장, 예를 들어 "Ele já chegou no Brasil?(그는 이미 브라질에 도착했습니까?)" 인지 명확하지 않다. 물론 서로 대화하는 상황에서의 질문이라면 인칭대명사 없이도 상황상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약 교육용 교재에서 (6)처럼 예문을 썼다면 단지 그 문장만으로는 명확한 의미 전달이 어렵다. 반면 유럽 포어에서 2인칭 동사변화형을 사용하였을 때 인칭대명사 tu 없이도 (7)처럼 써서 의미가 명백한 것과도 비교된다.

이는 현대 브라질 포어의 구문론과 사회언어학에서 점점 더 관심을 갖고 논의되는 문제인데 문장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격인칭대명사가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럽 포어에서 주격인칭대명사는 단지 강조하고자 할 때 쓰는 것에 반해, 실제로 브라질 포어에서는 유럽 포어에 비해 주격인칭대명사의 의무적 사용이 월등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호칭의 혼합

각 인칭에 따라 대명사도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1)에서 제

시하였듯이 포어에는 주격대명사, 직접목적격대명사, 간접목적격대명사, 소유대명사가 있는데 인칭과 성, 수에 따라 변화된 형태를 일치시켜줘야 하는 문법요소들이다. você가 의미상 2인칭인데 반해 문법적으로는 3인칭으로 분류되기에 우리는 여기서 2인칭과 3인칭 간의 관계를 대명사와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통문법에서는 '호칭의 혼합(misturade tratamento)'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호칭의 혼합이란, 예를 들어 주어로서의 você(3인칭)와 목적어로서의 te(2인칭), 소유격 teu(2인칭)를 한 문장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2인칭 요소는 2인칭끼리, 3인칭 요소는 3인칭끼리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매우 형식적인 문체에서나 단지 나타날 뿐 실제로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특히 브라질 포어에서는 호칭의 혼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8) Você não sabe que eu te amo?
(9) Você vai com o teu pai?

(8)의 예문, "너는(você)내가 너를(te)사랑하는지 모르니?"와 같은 구문은 주격대명사로 3인칭 você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목적격대명사는 2인칭 te를 사용했으며, (9)의 예문, "너는(você)너의(teu)아버지와 함께 가니?"라는 구문 역시 você와 함께 2인칭 소유격 teu를 결합시켰다. 만약 (8)에서 3인칭 직접목적격대명사 o를 사용하고 (9)에서는 3인칭 소유격 seu를 사용한다면, 문법적으로 3인칭끼리 알맞게 결합하여 호칭의 혼합이 없는 구문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의미가 모호해 질 수 있다. 즉 o는 '너를' 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를' 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seu 역시 '너의' 혹은 '그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인칭 te, teu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다.

(10) Você não sabe que eu amo ele?
(11) Você não vai com o pai dele?

나아가 3인칭 직접목적격대명사 o와 소유사 seu를 '그를'과 '그의'라는 의미로 쓰고자 한다면 실제로 브라질 포어에서는 (10)과 같이 ele, (11)과 같이 dele 형태를 사용함으로 인해 의미가 애매해 질 수 있는 요소를 방지하고 있다.

한편, 2인칭 복수의 주격대명사 vós와 목적격대명사 vos가 실질적으로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포어에서 소유격대명사 vosso/vossa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즉 vós의 쓰임이 사라진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현대 포어에 존재하고 있다. vosso/vossa의 사용은 역사적으로 볼 때 Vossa Mercê, Vossa Excelência등의 호칭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사용되어온 바, 그 고유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포어의 지속적 변화과정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명령형과 인칭 간의 관계

명령법은 구문의 특성상 주어를 표시하지 않으며 언제나 2인칭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포어에서 명령법도 기존의 2인칭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는 você가 3인칭 동사변화형과 결합하는 이유로 명령법의 체계도 3인칭의 영역까지 확장되었고, 2인칭 형태를 근거로 탄생한 명령법은 이제 접속법 3인칭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실제 회화에서 거의 사라졌다.

명령법의 사용 현황을 falar(말하다) 동사의 예를 빌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Fala/Não fales agora!
(13) Fale/Não fale agora!
(14) Falem/Não falem agora!
(15) Fala/Não fala agora!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u에 대한 긍정명령형으로는 직설법 현재 2인칭 단수에서 s를 탈락시킨 형태인 fala, 부정명령형으로는 접속법 현재 2인칭 단수형태인 não fales를 사용하는 한편, você에 대한 명령은 (13)과 같이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형태를 취하여 긍정명령형일 경우는 fale, 부정명령형일 경우엔 não fale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명령의 대상이 복수일 경우엔 (14)처럼 접속법 현재 3인칭 복수형태로 falem이나 não falem으로 쓰면 되고, 2인칭 복수형태에 대한 명령형 falai나 não faleis는 현대 포어에서 소멸되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단 (12)의 형태 fala는 형태적으로 2인칭 tu에 대한 명령형이므로 인칭대명사 você가 지배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쓰임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12)보다 (13)의 형태가 훨씬 더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2)의 형태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이제 (12)와 (15)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일단 규범문법에서는 (12)의 형태처럼 fala와 não fales가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여전히 포르투갈에서는 이처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표준문법과 달리 부정명령형에서 (15)와 같이 não fala의 형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브라질 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령 형태인 (13)과도 배치된다. 즉 (15)의 형태는 긍정명령형에 단순히 não만을 첨가한 형태로 부정명령형은 접속법으로 쓰여야 한다는 규범에 일단 어긋나고 있다.

Faraco(1996:73)에 의하면, 형태가 não fala인 점에 대하여 언어학자

Rodrigues Lapa나 Silveira Bueno, Xavier Fernandes는 이를 단순한 오류로서 보고 있는 반면, Dunn, Entwistle, Paiva Boléo는 정당한 형태의 명령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언어학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Lapa(1998)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 포어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2인칭 복수형태에 대한 명령형에 대하여 고전문헌에서는 2인칭 복수형태에 대한 부정명령형을 접속법 현재 2인칭의 형태 não faleis 외에도 긍정명령형 falai에 단순히 não을 결부한 não falai 형태도 함께 사용하였다. 즉 포어의 역사에서 긍정명령 형태에 바로 부정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유럽 포어에서는 제한된 지역, 즉 vós를 상대방에 대한 호칭으로 아직 사용하기도 하는 포르투갈 북부와 아소리스 군도 등지에서는 일종의 변이형으로서 아직 존재하고 있다. Casteleiro(1981)는 não falai처럼 긍정명령형에 바로 não을 붙이는 형태에 대해 명령하는 주체가 하지 말라는 그 행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 놓았다.

요약하면, 현재의 규범문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긍정명령형에 단순히 não만을 첨가하여 부정명령으로 만드는 형태는 역사적으로 일단 규명되었고 비공식적 문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실질적 쓰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긍정명령형 fala에 대해서도 2인칭에 대한 명령형태라기 보다 단순히 직설법 3인칭의 명령적 사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학자들(Casteleiro, Chaves de Melo, Mattos Camara etc.)의 주장도 대두되어 있는 바 그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일단 형태상으로 fala와 não fala는 브라질 포어에서 명령형이 아니라 직설법 현재 3인칭이다. 그렇다면 você를 주어로 한 평서문과 의문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6) Você fala/não fala agora.
(17) (Você) fala/não fala agora?

위에서 제시한 (16), (17)의 구문을 (15)의 구문과 비교해보면, (16)은 브라질 포어에서 평서문의 경우 주격대명사가 실질적으로 의무적인 사용을 보이고 있는 형태지만 (15)는 주어가 없는 명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17)은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의문문의 특성상 주어 없이 쓸 수 있지만 문장 끝의 억양을 올려줘야 하는 반면 (15)는 문장 끝의 억양을 내려야 한다. 이렇듯 (15),(16),(17)의 구문은 동사의 형태가 긍정, 부정의 경우 모두 직설법 3인칭 현재의 형태로 같지만 그 의미는 각기 다르다. 역으로 말하면 그 의미는 각각 다르지만 동사의 형태는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15)의 fala와 não fala도 일종의 명령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브라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령형 (13)과는 어떠한 의미적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실용적인 예문을 들어 언급하고자 한다.

(18) Fale agora!
(19) Fala logo, estou com pressa!

처음에 화자는 (18)과 같이 "지금 말해봐!" 정도의 톤으로 얘기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든 딴청을 피웠다. 그랬을 때 화자는 다시 한번 단호한 어조로 강조하여 자신의 명령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화자는 (19)처럼 "빨리 말해, 나 급해!" 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직설법 형태의 fala는 접속법 형태의 fale보다 의미상 더욱 강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브라질 포어에서 você의 사용이 tu보다 지배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fala/nãofala와 같은 직설법 형태는 이제 더 이상 2인칭 tu에 대한 명령형태라기 보다 você와 관련된 3인칭 현재형이 상황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 Vem aqui. Você está bem?
(21) Entra, Paulo. Você está atrasado.

위의 예문들은 브라질에서 아주 흔히 접할 수 있는 구문이다. (20)에서는 "이리와. 너 괜찮니?" 라는 의미로 vir(오다) 동사의 직설법 3인칭 현재형 vem을 명령적 의미로 você와 같은 문맥에서 사용하였고, (21)의 예, "들어와, 빠울루. 너는 지각이야." 에서도 entrar(들어오다) 동사의 직설법 3인칭 현재형 entra를 명령적 의미로 쓰면서 역시 같은 문맥에서 você를 사용하였다.

(20)에서 Venha~, (21)에서 Entre~와 같은 접속법 형태의 명령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Vem~과 Entra~를 사용한 것은 tu에 대한 명령형의 의미가 아니라 단지 상황에 따른 발화행위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você를 근거로 한 직설법 3인칭 현재형은 그 사용 영역을 확장하여 이젠 그 상황에 따라서 명령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포어의 호칭 você가 탄생하기까지의 포르투갈 사회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언어 변이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você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법요소들 간의 관계를 유럽 포어와 브라질 포어의 관점을 통틀어 고찰해보면서, você의 진정한 의미와

그 사용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나아가 인칭의 변화로 인해 충돌하게 되는 인칭과의 관계를 주격대명사, 목적격대명사, 소유격대명사 및 명령형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다루었다. 특히 você가 문법적으로는 3인칭이지만 의미상으로는 2인칭으로, 즉 타칭에서 대칭으로의 전용현상을 보인 점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데 이는 우리말의 '당신'과 같은 경우와 대비해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언어는 사회변화의 산물로서 지속적으로 현실 상황에 맞게 변화해 간다. 포어의 변화과정은 상황적 특수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변화의 역사 속에 살아남은 형태들은 어떤 발화행위의 실현을 위하여 특수한 고유성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2인칭 복수형의 동사와 대명사 형태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포어에서 여전히 소유격 대명사 vosso가 생존하였고, falar 동사를 예로 들었을 때, 2인칭 단수에 대한 명령형으로 출발한 fala가 브라질 포어에서 3인칭 단수에 대한 명령형 fale와 함께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você라는 호칭이 포어에서 사용되면서 발생하게 된 현실적인 사용 측면을 관찰해 본 결과, 유럽 포어와 브라질 포어 간의 특징과 함께 전통문법과 실제 활용 간의 차이도 알 수 있었다. você란 단순한 호칭이나 인칭대명사로서의 위치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법요소의 활용과 변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포어가 변화하면서 특히 브라질에서 현재 전통문법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요소에 대하여 고쳐져야 할 오류로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이형의 지위를 부여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복수 1인칭의 의미를 가지면서 문법적으로는 3인칭으로 분류되는 a gente의 가치도 고찰해 본다면 포어에서 3인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Amaral, A. (1976), O dialeto caipira, 3rd ed., São Paulo: Hucitec/Secretaria da Cultura, Ciência e Tecnologia.

Callou Dinah, LEITE Yonne, MORAES João (1995), "Variação dialetal no português do Brasil: aspectos fonéticos e morfossintáticos", Revista Internacional de Língua Portuguesa, Vol.10, No.14, pp.106-118.

Casteleiro, J. M. (1961), A expressão da ordem na língua portuguesa de século XX, Dissertação de licenciatura em filologia românica, Lisboa: Faculdade de Letras.

Castilho, Ataliba (1992), "O português do Brasil" in: ILARI R, Lingüística Românica, São Paulo: Ática, pp.237-285.

Cintra, L. F. Lindley (1972), Sobre formas de tratamento na língua portuguesa, Lisboa: Horizonte.

Cunha Celso, Cintra L. F. Lindley (2001), Nova gramática do português contemporâneo, 3rd ed., Rio de Janeiro: Nova Fronteira.

Duarte, Marcelo (1999), O guia dos curiosos-Brasil, São Paulo: Cia. das Letras.

_____ (2003), O guia dos curiosos: língua portuguesa, São Paulo: Panda.

Faraco, Carlos Alberto (1996), "O tratamento você em português: uma abordagem histórica, Fragmenta, Curitiba: UFPR, No.13, pp.51-82.

Fusaro, Karin (2001), Gírias de todas as tribos, São Paulo: Panda.

Garcia, Maria Cecília (2003), Mini manual compacto de gramática da língua portuguesa: teoria e prática, São Paulo: Rideel.

Hudson, R. A. (1995), Sociolinguistics, Seoul: Hanshin.

Kadmon, Nirit(2001),Formal pragmatics,Oxford: Blackwell.
Korytowski, Ivo(2004),Português prático-um jeito original de tirar suas dúvidas de português,Rio de Janeiro: Elsevier.
Lapa, M. Rodrigues(1998),Estilística da língua portuguesa,4th ed., São Paulo: Martins Pontes.
Neto, Pasquale Cipro(2003),Nossa lingua curiosa,São Paulo:Publifolha.
Nascentes, A.(1956),"O tratamento de você no Brasil," Letras, No.5/6, pp.114-122.
Neves, Maria Helena de Moura(2000), Gramática de usos do Português, São Paulo: UNESP.
_____(2003),Guia de uso do português confrontado regras e usos, São Paulo: UNESP.
Perini, Mário A.(1998),Gramática descritiva do português,3rd ed., São Paulo: Ática.
Sacconi, Luiz Antonio(2000),Não confunda,São Paulo: Atual Editora.
Santos Luz, M. dos(1956),"Fórmulas de tratamento no português arcaico", Revista portuguesa de filologia, No.7, pp.251-363.
Tarallo, Fernando(2002),A pesquisa sociolingüística, São Paulo: Ática.

▌논문투고일자 2008년 5월 6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6월 10일